

# 제25회 생글논술경시대회

## 고1 공통 유형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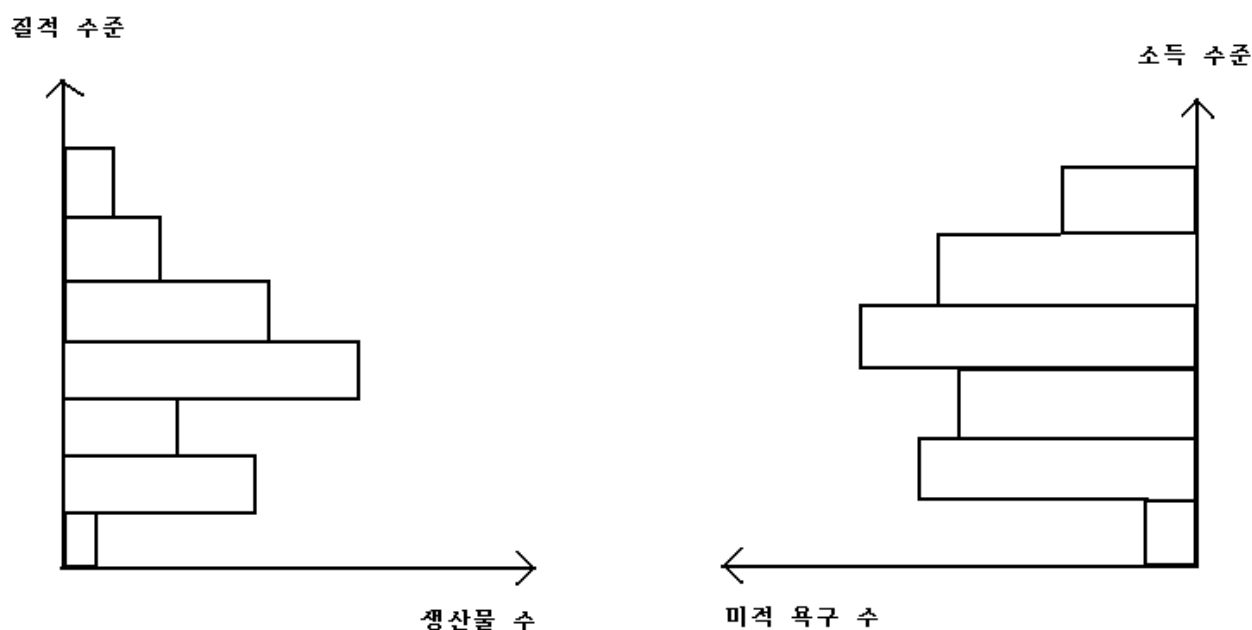
### (가)

키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독일 남부에서였는데, 당시에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물건을 속여 팔거나 강매한다.’는 뜻으로 쓰이다가 갈수록 의미가 확대되면서 저속한 미술품, 일상적인 예술, 대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유럽 전역이 이미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파급 속도도 빨라 중산층도 그림과 같은 예술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미술품이나 그림을 사들이려는 욕구가 강해졌다. 키치는 바로 이러한 중산층의 문화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럴듯한 그림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던 개념이다.

키치가 가리키는 구체적 대상은 고미술품을 모방한 가짜 복제품이나 유사품, 통속 미술작품 등이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와 같은 걸작품을 석고나 플라스틱으로 복사한 ‘가정용품’에서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저급한 일러스트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조악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미술품과 저속한 대중적 취향의 대중문화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키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면서 고급문화나 고급예술과는 별개로 대중 속에 뿌리박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어 현대 대중문화·소비문화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는 척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략) 키치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본성상 교육적, 교훈적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좋은 취미는 나쁜 취미를 경유하여 생겨난 것이며, 다시 말해 나쁜 취미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키치는 작품평가의 다양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키치는 자신이 서 있는 장소에서 바라다보는 풍경만이 전부가 아니므로 다양한 비교를 위해 자리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또한 키치가 예술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적어도 일상생활의 미적인 양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예술의 초월성을 거부하며 최대다수에 근거를 두며 확률적으로도 가장 넓은 계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키치란 행복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 (나)



\* 왼쪽의 피라미드는 그 사회가 각각의 질에 따라 생산한 미적 생산물의 수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오른쪽의 피라미드는 각 계층이 보여주는 미적 욕구의 수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작품의 질은 하나의 작품 군(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노력, 시간 그리고 시장가격에 비례한다.

## (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파리에 온 이유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파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多樣性)과 관용(寬容)을 이 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덕목(德目)으로 칩니다. 파리 예술의 토양이 바로 이 다양성과 관용성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양성은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유의 개념이며 관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남겨주는 인(人) 간(間)의 여백(餘白)입니다. 최근의 경향 역시 특히 미술과 건축에서는 종래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주제에서 탈피하여 단편화, 개체화를 모색하는 일종의 해체주의적 시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견 포스트모더니즘과 궤를 같이하는 몰가치적 경향이라 비판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상품으로서의 예술이나 상품 미학이라는 거대 자본의 물질주의가 별이는 획일적(劃一的) 포섭(包攝)을 거부하는 프랑스 고유의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가 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을 누리게 되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기존의 관습과 관성을 일상적으로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타성(惰性)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성은 우리가 그것이 억압이나 구속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것은 견고한 무쇠방\*입니다.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감성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 복무해야 할 목적이거나 예술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예술은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열어주는 해방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이야말로 예술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과 다양성은 그런 점에서 예술의 전제이며 예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중심축이 프랑스로부터 뉴욕이나 밀라노로 옮겨갔다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습니다. 부르주아의 물질주의적 현실관에 포위되지 않은 예술, 특히 예술의 해방적 의미와 창조적 속성이 포기되지 않는 한, 파리는 그 중심의 이동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파리는 비단 예술에 대한 모색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수많은 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회의는 그 바탕에 있어서 파리가 갖고 있는 예술혼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깊이 있는 관련을 추구하는 것이며, 어떠한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소통 방향'(疏通方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무쇠방 : 철로 만든 밀폐된 방

## (라)

1951년 12월, 전쟁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부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중섭은 다시 부산으로 건너왔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불안정하였다. 이중섭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두 노동이나 운수 회사의 인부 노릇을 했다. 그러나 그가 버는 돈으로는 가족들의 끼니를 이어 가기도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불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장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내의 건강이 나쁘데다,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일본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내는 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에 걸려 각혈까지 하는 중증 환자였다. 그런데 아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갈 결심을 하였다. 생활고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난 이중섭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신문사 문화부장에게 이중섭을 추천했다. 이중섭에게 소설 삽화라도 맡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문화부장은 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 주었다. 신바람이 난 그는 이중섭을 찾았다.

“중섭이, 이제 되었네. 신문 연재소설 삽화를 맡아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그리면 부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나는 삽화를 그릴 자신이 없어.”

이중섭은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니, 왜?” / “미안하네. 삽화는 못 그려…….”

친구는 이중섭이 삽화를 그리지 않겠다는 까닭을 알았다. 삽화를 그려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그림이 아니므로 그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중섭은 개털 외투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종이를 꺼내 친구에게 내밀었다.

“아니, 이건 담뱃갑의 은박지가 아닌가?”

“그래, 은박지 그림이지. 요즘 이런 걸 그리는 재미로 산다네.”

이중섭이 내민 은박지 그림을 받아들고, 친구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중섭의 삶 자체가 그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문제 1. (가)를 참고하여, (나)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점, 401~600자)

문제 2. (가), (다)를 참고하여 (라)의 이중섭의 태도를 평가하고, 상업 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60점, 801~1,000자)